

● 인생은 짧고 생명은 무한하다

- 부처는 인생이란 꿈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했다. 생명의 탄생과 소멸은 그저 긴 윤회 속의 짧은 과정일 뿐이다. 결국에는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무한한 경지로 돌아가게 된다. 그 경지에서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, 시작도 끝도 없다. 부처가 알려 준 이 무한한 생명의 경지를 믿는다면,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근심할 것은 무엇이겠는가?

우리의 인생이 잠시 떠난 먼 여행이고
긴 여정에서 잠시 샛길로 나와 있는 것이라면
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?